

슬릿스코프 작 '아이 퀘스천 2.0'



# 인간과 기계의 관계 미디어로 풀어내다

### 24일까지 ACC '미디어월' 콘텐츠 공모 당선작 쇼케이스 '슬릿스코프'·이조흠 작가 작품 오후 5시~밤 10시 상영

인공지능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 나아가 사진이 지닌 고유의 예술적 특질을 미디어아트를 매개로 대화할 수 있을까? 또한 인간의 얼굴을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조형한 모습은 어떤 형상일까?

답이 없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인간과 기계의 관계 양상을 미디어로 풀어낸 작품, 복잡한 현대인이 지닌 삶의 모습을 3가지 도형 구도에 함축한 작품을 미디어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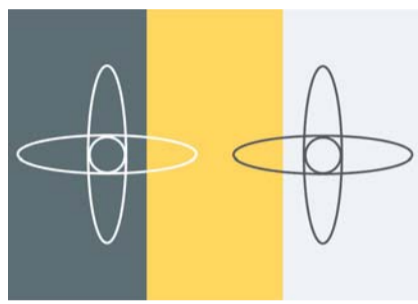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미디어월 콘텐츠 공모 당선작 쇼케이스를 오는 24일까지 상영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상영중인 작품은 '응답하라 ACC 미디어월'에 부합하는 관객 참여형 콘텐츠다.

이번 콘텐츠 당선작은 지난 2019아시아문화주간 공모작으로, 지난 10월 22일 미디어월과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상영된

바 있다. 두 작품 외에도 '파슬리 소녀'(노영미), '스펙트로그래피'(백종관), '별거벗은 섬'(정희정), 'UnseenData'(광주, 시간의 흔적), '기이한 풍경'(허병찬)이 상영됐다.

이번에 상영중인 공모 당선작은 미디어아트스트 김제민과 인공지능 연구자 김근형이 팀을 이룬 '슬릿스코프'의 '아이 퀘스천 2.0-I Question2.0'(오후 5-7시), 다양한 매체로 시각 작업을 하는 이조흠 작가의 '3 types of humans-world, asia and gwang ju'(오후 7~밤 10시).

'아이 퀘스천'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췄다. 작품은 사진에 대해 인공지능(AI)과 관객이 질문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질문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관객이 올린 사진들을 선별한다. 이때 답이 없는 질문을 통해 타자의 말걸기는 주체적 존중으로 전이된다. 이 같은 I Question 2.0의 거듭된 수행과정은 예술을 평가하는 인공지능의 진화가



이조흠 작 '3 types of humans'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사유에 대한 진화라고 할 수 있다. 관객들은 아시아문화원 광장에 설치된 참가 코드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작가인 김제민과 김근형은 각각 예술과 과학이라는 다른 분야에서 활동해오다가 지난 2018년 인공지능을 개발한 미디어아트 'I Question' 작업을 계기로 팀을 이루었다. 팀명 '슬릿스코프'는 양자역학의 이중슬릿실험에서 영감을 받아 붙여진 이름으로, 알지 못하는 미지의 틈새를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이조흠 작가의 '3 types of humans-world, asia and gwang ju'는 인간의

얼굴을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조형한 작업이다. 세 도형에 검정색, 흰색, 노랑색을 통해 아시아와 광주 그리고 현대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이다. 작품은 2019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삶속에 깃든 기술과 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 민주화의 역사를 지닌 광주의 모습을 특유의 조형적 감각으로 풀어낸다.

이조흠 작가는 회화작업과 사진 영상 작업 등 다양한 매체로 시각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음악 DJ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힙합음악 레이블 NOP를 맡고 있다.

한편 국내 최초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각광받았던 '미디어월'은 지난 9월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이 꾸러짐에 따라 2021년 철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미디어월은 문화전당의 미디어아트 발전 전략, 전당의 랜드마크 기능과 맞물려 있는데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존치 목소리 또한 높다. 현재 복원추진단은 5·18단체들과 다각도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자연의 생명력을 묘사하다

### 한국화가 김종경 기획전, 8~22일 무등현대미술관

'화폭에 풀어놓은 다채로운 풍광' 한국화가 김종경 조선대 교수가 8일부터 22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초대 기획전을 갖는다.

주변 자연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산, 강, 나무, 들꽃 등을 화폭에 담은 김 작가의 작품들은 풍경의 사실적인 묘사에 그치지 않고 추상적 표현을 가미해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노란 산수유 군락도 그의 붓터치 속에서는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김 작가는 전통회화에 바탕을 두지만 끊임없이 현대 한국화의 변화를 모색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일구어내고 있다.

김 작가는 자연에서 느끼는 생명력을 통해 삶에 대한 절실한 질문을 던지고, 의

미를 확인하며 그 감동을 회화적 기법으로 풀어낸다.

단순화된 자연현상 이면에 흐르는 생명의 기운에 역점을 두고, 색채의 분출과 번짐을 통해 음과 양의 분위기를 한 곳에 풀어내며 다채로운 선의 움직임으로 약동하는 기운을 전한다.

작품의 주제는 '봄'이라는 계절이 갖고 있는 생명의 표현이다. 내재된 생명의 기운이 밖으로 분출되는 봄의 특성을 강하게 받아들여 '생명에 대한 환희'를 형상화했다.

또 죽음과 생명, 정지와 움직임, 고요함과 시끄러움, 밝음과 어둠, 단순함과 복잡함 등 자연의 생명이 가지는 여러 추상적인 특성들도 함께 표현해 색다른 감성을 전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반추화'

##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해와 달 사이'

### 김대진 초대전, 30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이 김대진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오는 30일까지 '해와 달 사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보편적인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상징으로 여겨지는 '꽃'과 '잎'을 모티브 삼아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전통 한국화를 바탕으로 구도, 색상, 형태 등에 변화를 주 친근함과 더불어 긴장과 확장의 역동적 이미지를 연출했다. 화려한 느낌의 원색 계열의 색감은 화면에 생생한 감성을 부여하며 평면성을 기반으로 도안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여기에 선염(滲染)을 가미해 입체감을 강조했다.

작가는 섬 없이 변화하는 우주에서 인간 상념이 갖는 무상함과 그로 인한 새로운 변화의 수용 등 사색적인 문제를 자신만의 개성 있는 시각으로 해석해 항상 피



'해와 달 사이'

고 지는 꽃으로 표현해 냈다. 전남대 미술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김 작가는 동남대학교를 대표로 맡고 있으며 '오월정신 릴레이아트', '100인의 희망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달팽이의 달

### 11일 월산동 달피 달팽이마을서 '달빛 축제'

광주시 남구 월산동 달피 달팽이 마을은 올해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변화가 이뤄졌다. 사업을 주도해 온 남구문화적 도시 재생사업단이 11일 달피 달팽이 마을에서 마을 달빛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지금까지 모두 세차례 열렸으며 올해는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과 결합해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제 4회 행사가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올해 축제는 마을 곳곳에서 거점 역할을 하는 문화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아트체험, 먹거리체험, 알까기대회, 노

래방점수대회와 백일장대회 '달짓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됐다. 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 중인 마을 풍물패 사전공연과 청춘트롯 및 퓨전국악 공연 등도 열린다.

축제 메인행사는 달피마을에 건립될 예정인 커뮤니티센터 달빛점등식(오후 5시)이다. 마을 주민들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밝은 달'을 곳곳에 띄운 후 주민들이 LED 촛불을 들고 골목을 행진하며 어두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다.

또 새마을주민협의회가 제공한 가래

떡을 비롯해 파전과 국수 등 푸짐한 먹거리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사업 시작 후 달피 달팽이마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9월 초부터 주민과의 상생, 유대감 증진을 목적으로 '화목한 달피마을'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달이산이' 마을 활동가 10여 명이 맡고 있다. 또 마을 여러 곳에 주민쉼터를 마련했으며 어머니 경로당에서는 주민생애 릴레이 전시도 열고 있다.

11월 말에는 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완성한다. 김선영 큐레이터와 함께



김자이, 김현돈, 설 박, 양나희, 유지원, 이세현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참여, 빈집과 골목길 등 6곳에 공공설치미술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월산동에서 현재 진행중인 새마을마을 재생 현장을 찾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6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